고려 발우·고승 유묵, 범어사서 마주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 기념전

7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구 범어사 성보박물관서 진행
태안 출수 청자발우 38점 비롯
근현대 선지식 유묵 등 선보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12세기 고려시대 사찰로 향하던 중 거친 바다에 가라앉았던 청자 발우가 900년의 시간을 넘어 천년고찰에서 고승들의 법맥과 마주한다.

금정총림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범어사 주지)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소장 이은석)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를 기념해 7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범어사 구 성보박물관에서 '900년의 기다림, 마침내 마주하다: 고려청자발우, 그리고 고승유묵' 특별기획전을 공동 개최한다. 이는 리모델링을 마친 구 성보박물관에서 선보이는 첫 전시로 의미를 더한다.

이번 전시는 약 900년 만에 세상 빛을 본 고려청자 발우 38점과 한국불교를 이끌어온 근현대 고승들의 유묵을 한자리에 모았다. 바닷속 시간은 멈춰 있었으나 산사에서는 스승에서 제자로 끊임없이 법맥이 이어져 왔음을 대비하며, 시공간을 초월해 전승되는 국가유산의 살아있는 가치를 조명한다.

전시는 총 3부로 나뉘어 전개된다. 1부 '푸른빛이 새어 나오다'에서는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출수된 청자 발우 38점을 전시해 당대 뛰어난 도자기술과 불교문화를 살핀다. 2부 '지나온 시간을 마주하다'는 수행자의 삶을 상징하는 발우와 불법 전승의 출발점인 수계(受戒) 관련 자료를 통해 불교


태안 앞바다에서 출수된 고려시대 청자발우. 청자발우 38점이 전시된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휘호, '세계여일화(世界如一花)'.

공동체의 의미를 짚어본다.

전시의 백미가 될 3부 '검은 먹이 번지다'에서는 경허·용성·만공·만해·동산·동헌·성철 스님 등 근현대 고승들의 유묵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 그리고 기록으로 이어져 온 불교 정신과 살아 있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소개한다. 아울러 이번 특별전을 위해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와 금정총림 방장 정여 대종사는 축하의 뜻을 전하며 휘호를 내렸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두 기관이 해양문화유산과 불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연구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결실이다. 양 기관은 매년 조선통신사선 무사항해 기원제를 공동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장 정오 스님은 "바다와 산사라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이어져 온 시간이 하나의 이야기로 만나는 뜻깊은 자리"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계기로 세계여일화(世界如一花)의 정신을 되새기고 문화유산의 보편적 가치를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은석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역시 "이번 전시가 우리 국가유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텍스트를 넘어 삶의 지평으로

㊽ 오중현의(五重玄義)

五重玄義

〈앙굿따라 니까야〉 '깔라마경'에서 붓다는 법문을 듣고 실천하는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한다. "성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왔다고 해서, 권위 있는 스승의 말이라고 해서 그것을 맹신하지 말라. 스스로 심사숙고하고 실천하여 번뇌가 소멸됨을 확인한 뒤에야 받아들이라."

이 가르침은 오늘날 불경과 성경을 읽으며 성인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진다. 과연 성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까.

텍스트에만 매달린 불경 독법은 자칫 맹목적 믿음과 경직된 사고를 형성할 위험이 있다. 오래 전에 성립한 경전의 말씀과 오늘의 삶이라는 맥락을 함께 살피지 못하면, 독서는 삶을 변화시키기보다 기존의 신념만 강화하는 데 그칠 수 있다. 경전의 참뜻을 이해하고 삶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문자 너머의 의미를 읽어내는 해석학적 안목이 필요하다.

중국 수나라의 고승 천태 지의(538~597)는 〈법화현의〉에서 이러한 독법을 체계화한 '오중현의(五重玄義)'를 제시했다. 첫째는 제목에 담긴 뜻을 밝혀 핵심을 파악하는 '석명(釋名)', 둘째는 경전이 드러내는 궁극적 진리를 밝히는 '변체(辨體)', 셋째는 그 진리를 실현하는 수행의 종지를 밝히는 '명종(明宗)', 넷째는 그 가르침이 삶과 사회에 미치는 효용을 살피는 '논용(論用)', 마지막은 경전이 불교 교설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를 판단하는 '판교(判教)'이다.

이 다섯 단계는 경전을 단순히 해설하는 방법이 아니라, 본질과 실천, 역사적 맥락을 함께 통합하는 이해의 과정이다. 붓다가 강조한 '심사숙고'의 정신을 지의는 치밀한 해석 체계로 구체화한 셈이다.

이러한 관점은 서구 현대 해석학과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 서구 해석학은 종교개혁기의 성서 해석에서 출발하여 슐라이어마허를 거쳐 가다머에 이르러 철학적 해석학으로 발전했다. 가다머는 이해를 저자의 의도를 그대로 복원하는 작업이 아니라, 독자의 삶의 경험과 텍스트의 세계가 만나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지평의 융합'으로 보았다. 이는 제목에서 핵심을 파악하고 본질을 드러내며 실천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오중현의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

결국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글자를 붙드는 일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 가리키는 삶의 방향을 따라 스스로 걸어가는 실천이다. 텍스트를 넘어 그 이면의 컨텍스트를 이해할 때 독서는 비로소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얻는다.

야부도천 선사는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경책했다. "손가락 아래에서 달을 보려 하고, 문밖에서 아침을 찾으려 하는구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달이 아니며, 문은 새벽을 막는 경계가 아니다. 문자와 형식에 머물면 진리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경전의 언어를 넘어 그 말이 가리키는 삶의 세계를 살아낼 때 비로소 붓다의 가르침도, 모든 성인의 말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야부도천의 이 한마디는 텍스트에 갇힌 독서에서 벗어나 삶의 지평으로 나아가라는 준엄한 경책을, 오늘 책장을 넘기는 우리 앞에 다시 무겁게 내려놓고 있다. 〈화순 불암사 주지〉

조계종 성보박물관협회, 中 연수 성료

6월 24~27일, 베이징 등서
회원관 교류 및 견문 확대



전국의 성보박물관 관계자들이 중국에서 견문 확대를 위한 연수를 진행했다.

조계종 성보박물관협회(협회장 서봉 스님, 이하 협회)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청더(承德), 베이징(北京) 일원에서 '2026년도 조계종 성보박물관협회 해외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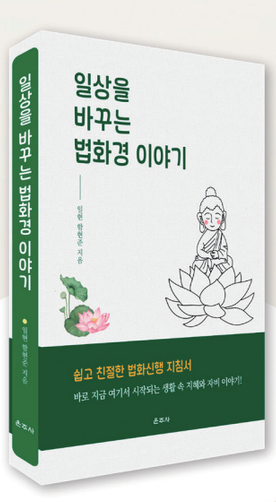
협회 발족 후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협회장 서봉 스님을 비롯해 주경(수덕사근역성보관장)·현석(해인사성보박물관장)·법오(무위사성보박물관장)·수관(도갑사도선국사성보관장)·해운(월정사성보박물관장)·원명(옥천사성보박물관장)·진웅(직지성보박물관장)·청마 스님(백양사성보박물관 부관장) 등 성보박물관 27개관 관계자 36명이 동참했다.

연수에서 동참자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중국 청나라 황제의 여름 행궁(行宮) 청더시 피서산장(避暑山莊)과 불교사원 보녕사(普寧寺), 보타종승지묘(普陀宗乘之廟), 수미복수지묘(須彌福壽之廟), 청더박물관, 베이징 수도박물관을 방문하며 견문을 넓혔다.

협회장 서봉 스님은 "이번 연수가 협회 성보박물관과 수장고의 운영 및 발전에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교중앙박물관과 성보박물관협회는 지속적인 교류와 연구를 통해 성보박물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협회는 2015년에 발족해 현재 42곳의 회원관이 교류하고 있다. 특히 성보박물관 관계자들의 문화유산 견문 증진을 위해 격년으로 해외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일상을 바꾸는 법화경 이야기



쉽고 친절한 법화신행 지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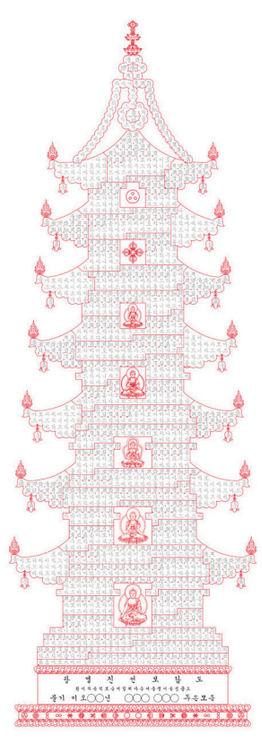
법화경의 핵심 사상을 23개의 주제어, 즉 '지혜', '인연', '불성', '인과', '공덕', '보살행' 등의 개념으로 풀어내, 일상 속에서 내 마음속 부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끈다.

함현준 지음/신국판/416쪽/값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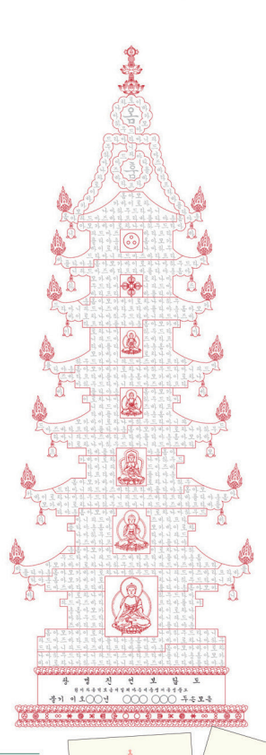
무명과 업장을 소멸하고, 영가를 극락왕생으로 인도하는 광명진언 사경 공덕!



광명진언 보탑 사경 Level 3 길 따라 쓰기 한글 및 범어



광명진언 보탑 사경 Level 2 구역 쓰기 한글 및 범어



광명진언 보탑 사경 Level 1 한글 가로쓰기

<광명진언 보탑 사경>은 단순한 필사를 넘어, 신심으로 한 층 한 층 '보탑(寶塔)'을 완성하는 여정입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나와 가족의 업장을 소멸하고, 삶을 바꾸는 기적 같은 가피를 경험해 보세요.

행오 스님
(국가무형유산 사경장 이수자)
380×1036mm, 한지 사경
각 9,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